

한국기업의 투자 적격지, 중국 연길

연변은 한국인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지역이다. TV에서 연예인들이 연변 말투를 흉내내는가 하면 연변 사람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을 정도다.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 또한 위성을 통해 한국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한국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만큼 한국과 연변지역의 문화 및 사고방식의 차이가 좁아지고 있다.

글_ 안영길(연길시정부 서울주재대표부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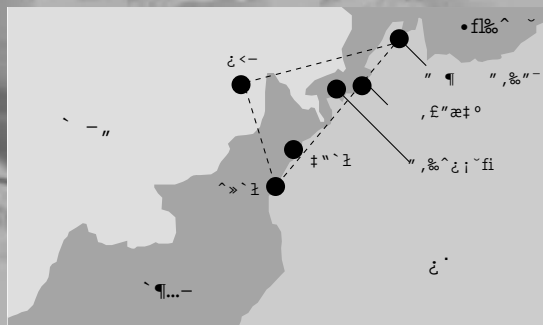
연길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소재지로서 완벽한 인프라 구축과 관광, 서비스 산업의 발전으로 투자와 무역의 적격지로 국내외 기업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리적 위치나 문화적 측면으로 볼 때 한국기업이 광활한 중국 대륙과 러시아, 북한 등 국제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연길시 인구는 43만명으로 조선족이 58%를 차지해 중국에서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연길은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노동력이 풍부하며 각종 전문직 기술자들도 3만명 이상이다. 중국정부에서 지정한 100대 대학 중 하나인 연변대학에서는 매년 2천여 명의 우수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각종 전문학교에서도 매년 3천여 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어 외국투자기업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특히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양성되는 IT산업 인재들은 연변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IT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취업난이 심한 중국시장에서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동북아 관문도시, 한국 벤처 위한 산업단지도 조성

연길은 UNDP(유엔개발계획)에서 지정한 21세기 동북아 금삼각(金三角)지구의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하다. 동으로는 러시아 연해지역, 남으로는 북한과 인접해 중국 동북지역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시키는 교통의 중추지로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 한국, 일본과의 왕래가 유리해 동북아의 관문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연길국제공항은 연길-인천 직항노선 8편이 매주 운항한다. 기타지역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오는 항공편이 무려 20여 편에 달한다. 연길-부산, 연길-러시아, 연길-평양 등 직항편도 곧 개항할 예정이다. 중국 내 국내선은 베이징, 상하이, 청도, 대련, 심양, 장춘 등 주요도시로 통하는 정기항공편이 있어 국내외 주요 도시와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상운송은 연길에서 출발해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의 지르비노항을 거쳐 한국의 부산,



▲ Golden Triangle Zone의 요충지, 연길



▲ 한국기업들을 위한 아파트형 공장

속초항으로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하다.

연길시는 한국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12.7km²의 경제개발구(산업단지공
단)을 조성하고 중국중앙정부에서 지정한 서부대개발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유일하게 서부대개발정책, 동북노후공업기지 진흥 및 개조정책, 소
수민족기업정책 등 3가지 국가정책을 동시에 받아 세급, 외환, 토지, 은행금
리, 개인소득세, 투자비례, 제한산업범위 확대 등의 특혜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중소기업공업원을 별도로 조성하고 아파트형 공
장을 지어 처음 3년간은 무료 사용, 이후 2년 동안은 임대료의 50%만 납부토
록 하는 특혜를 주고, 토지를 매입하는 투자회사는 투자금액에 따라 별도의
혜택을 주고 있다.

연길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총 352개이며 그 중 70%가 한국인 투자회
사다. 주요 투자분야는 전기, 전자, 의료기계, 소프트웨어개발, 식품, 방직, 복
장, 의약, 건강식품, 관광서비스 업종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의 벤처기업들이 투
자를 이끌고 있다. 한국자본이 투자된 연변과학기술대학, 연길세라젠티로기,
연변성보빌딩 등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그중 세라젠티로기는 중국시
장에서 연 5천만달러의 성공적인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어 의사소통 가능해 중국 진출 유리

한국 벤처기업이 연길에서 사업을 할 경우 유리한 점이 여러 가지 있다.

첫째, 연길은 중국에서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 통역 없이 우리말로 직
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직원교육, 관리, 중국시장 등이 타지역
보다 빨리 이루어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등 기술교육이
우선인 산업이 더 유리하다.

둘째, 연변대학, 연변과기대 등 대학이 있기에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바로
충족 및 양성할 수 있다.

셋째, 러시아, 북한 등 국가와 인접하기에 향후 중국시장과 동일하게 진출할
수 있다. 연변은 중국문화권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이 그대로 살아 있는 지역
이므로 중국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를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어 중국시장 진
출에 더욱 유리하다.

넷째, 자원과 에너지가 충분하다. 중국에서 동북을 제외한 기타 연해발달도시
는 이미 전력난 인력난 때문에 회사경영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

다섯째, 시정부에서 최상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회사경영에 많
은 도움이 된다.

연길시 정부는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벤처기업에게 보다 많은 편의
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에 대표부를 설립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심 있는 벤처기업들의 문의를 기대한다.

연길시 서울대표부 02-362-1210, 019-206-1888

홈페이지 www.yanjichina.com



워싱턴 김만기 의장, 몽골정부로부터 수상



워싱턴지부 김만기 의
장(SMI현대 대표)이 지
난 2월 13일 몽골정부
로부터 한국-미국-몽
골인들 간 우정과 협력
을 증진시킨 공을 인정
받아 'Golden Star of
Peace Medal'을 수
상했다. 이 상은 해외

정부나 경제계 리더들에게 수여하는 몽골 최고의 상이다. 김만기
의장은 현재 '한-몽골 경제 비즈니스 지원가 협회(the Supporters
Association of Korea-Mongolian Economics and Business
Institute)'의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동경 이강현 의장, INKE JAPAN 설립

동경지부 이강현 의장이 기존의 사업체를 새롭게 정비, INKE
JAPAN을 설립했다. 한-일 간의 경제협력 및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NKE 동경지부도 그에 상응하는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각오이다.

① 회사명 : INKE JAPAN

② 대표취재역 사장 : 이강현(INKE 동경지부 의장)

취재역 부사장 : 다카하시 히로유키(INKE 동경지부 부의장)

③ 연락처 : Aios Gotanda Anex 407, 1-7-11, Higashigotanda,
Shinagawa-ku, Tokyo, Japan(104-0045) / 전화 81-3-
5791-3177 / 팩스 81-3-3446-6818 / 모바일 81-80-1213-
1744

④ 사업내용

- 한국기업의 일본 내 경영컨설팅업무 및 마케팅 업무
- 한국기업의 일본주식시장의 컨설팅 마케팅 업무
- 한국-일본기업 간 사업제휴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 마케팅
지원 업무 등
- 한일 벤처기업의 투자관련 컨설팅 및 투자 업무
- 협회, INKE의 전반적인 일본 내 홍보 및 대외적 활동 등